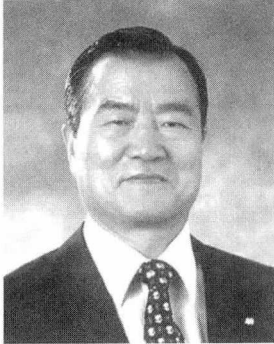


## 기묘년을 맞이하며



한국도로교통협회  
회장 정승렬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IMF 경제위기 극복 가능성을 확인한 1998년이 가고 '제2의 건국'을 굳건히 다지는 희망찬 기묘년 새 해입니다.

새 해를 맞이하여 도로교통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뜻하시는 일에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나라의 도로교통의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도로교통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인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998년은 우리 도로교통인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참으로 힘겹고 지루한 한 해였지만 한 편으로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창조하였던 우리 국민의 저력을

을 다시 한 번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였고 IMF 경제위기라는 미증유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도로교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금 모으기 행사를 전개하는 등 우리의 굳은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IMF에 진 빛을 상환하게 되는 등 어둡고 긴 경제난의 터널끝에 서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가 다시 한번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금융, 정부, 노동 등 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나라경제가 건실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고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제2의 건국' 운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우리는 '도로교통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제5회 ITS 서울세계대회를 50개국 5천 여명의 도로교통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어 우리 나라에 지능형 교통체계 즉, ITS의 구현을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도로교통인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새롭게 맞이한 1999년은 과거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이기에 지금까지의 결과에 만족해서도 안되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우리는 2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와 새로운 1000년에 전개될 국가와 민족의 밝

은 미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가 다져 놓은 기반 위에 우리 나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중차대한 책무를 다 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지난해 외환위기의 성공적 극복과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등 4대 부문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올해부터는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국민의 생활 속에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정개혁 강화와 경제재건의 시작, 국민화합의 실현, 지식기반 확충, 문화관광의 진흥 등 5대 국정지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로교통인도 이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남다른 각오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의 위치를 확고하게 정립하고 환경변화의 주도세력으로 우뚝 서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로교통인은 지난해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 닦아 놓은 바탕 위에 ITS를 하루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우리 나라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그 가치와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지식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그 일환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을 높이고 도덕적, 전문적 신기술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며 아는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도로교통인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작게는 우리 도로교통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며 크게는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나아가 제2의 건국을 굳건히 다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21세기에 전개될 고도의 지식정보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 가는 첩경이라고 믿습니다.

도로교통인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금까지 잘 해 주셨듯이 더욱 더 분발하여 국가와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거듭 나야 할 것입니다. 저도 우리 도로교통인과 도로교통분야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며 여러분의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도로교통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뜻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